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흘간의 슬픔



당신이 기도하러 올라가실때
우리는 그것이 이별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실때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말없는 입맞춤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지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그 슬픈 울음소리에
당신을 부인하던 베드로
당신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길
당신을 따르던 이들은 땀 한 방울로 물들여진 길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
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는
우리를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었으면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은 십자가는
생명의 근원인 당신의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녁 놀이지며 피로 물들여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을 따르던 이들의 눈물과 울부짖음과 함께
뉘게 물들여진 저녁 놀 속으로 잠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을 존중해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인격에 흠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말의 오후에는 서점에 들러라
무엇보다 눈빛을 빛내며 책들을 고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아라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28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김성일 -



당신이 딱딱하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는 부드러운 침상 위에 꿇어 앉았나이다

당신이 캄캄한 성문 밖에 외로이 달려 계실 때
나는 낮은 지붕 안온한 벽 안에서 기도하나이다

당신이 모든 것 벗기우고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나는 가릴 것 다 가리고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당신이 온몸을 다 찢리우고 찢기시어 신음하실 때
나는 험한 세상길이 힘겨워 당신 앞에 호소하나이다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마르다 하실 때
나는 세상의 고초에 지쳐서 당신 앞에 눈물짓나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모두 버림 받으실 때
나는 오직 당신의 아픔에 의지하여 위로를 바라나이다

이제야 나는 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신의 절망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압니다 그 무서운 어둠 속으로부터
당신의 피맺힌 음성이 이르러 나를 살리셨음을

성금요 예배순서

* 예배의 말씀	베드로전서2:21,24	인도자	특송	윤형권 집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하심이라."		성찬식	
			*성찬참여: 오늘 성찬은 세례자. 유아세례자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모두 참여하십니다.	
영광송 참회의 기도	"Calvary"	다같이	식사	집례자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성경봉독	고전 11:23-29
*찬송	"그때 그 무리들이"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할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시교독	61(수난일)		권면	
특송		신경화 집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말씀의 선포	가상철언	김성국 목사	성찬	다같이
	1)"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분병	분병위원
	찬송 330장 1,3절		기도	(분병위원:임성광.박일영.김종건.김순자.이광희)
	2)"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23:43)		*분잔	집례자
	찬송 339장 1,5,6절		기도	분잔위원
	3)"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19:26)		찬송	(분잔위원:김교섭.최재학.정덕수.노은숙.이규임)
	찬송 185장 1,4절		축도	집례자
	4)"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15:34)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다같이
	찬송 440장 1,3절		김성국 목사	
	5)"내가 목마르다"(요19:28)			
	'우물가의 여인처럼'			
	6)"다 이루었다"(요19:30)			
	찬송 135장 1,3절			
	7)"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23:46)			
	찬송 188장 1,3절			